

전북, 새만금에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총력

새만금 산단, 50만㎡ 이상 부지 · 연구 인프라 갖춰...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서 새만금 유치 성공 결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에너지 패권을 좌우할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나섰다.

30일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연구시설 부지로 새만금 산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진행되며, 핵융합 기술개발에 3,500억원, 실증 인프라 구축에 8,5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부지 선정은 1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핵융합 기술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인공적으로 재현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인공태양’으로 불린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고준위 radioactive waste 발생시키지 않으며, 폭발 위험이 없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새만금은 공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최소 요구 면적인 50만㎡를 초과하는 단일 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왕복 6차선 진입로가 확보돼 있다. 전기·상하수도 인입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2027년 말 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사업 착수 시기와도 맞아 떨어진다.

전북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구축된 연구 인프라다. 군산에 위치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는 2012년 개소 이후 플라즈마 기초·원천기술 연구를 수행해 왔다. 플라즈마 신기술 개발과 산업화도 추진하고 있어, 핵융합 연구시설과의 기능 집적화가 용이하다.



30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에 떠오르는 인공태양' 슬로건 아래 전북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성공기원 결의 다짐 행사가 병행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과 RE100 산단 등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및 실증단지가 인접해 연구성과의 실용화와 상용화에도 유리하다.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배후도시인 전주와 군산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연구인력 수급과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유치 성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는 ‘새만금에 떠오르는 인공태양’ 슬로건 아래 유치 성공기원 결의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국회의원들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주권 확보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는 가

운데,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첨단 연구 인프라가 새만금에서 시작되길 바란다”며 유치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3일 새만금청, 군산시, 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유치대응TF Kick-off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도내 주요 혁신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군산시의 함께 유치지원 릴레이 피켓 퍼포먼스, 서명운동, 주민 간담회 등을 추진해 도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핵융합 연구시설이 유치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연구시설 건립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이 직접 고용하는 인력만 350명 이상이며, 전기전자 및 초전도 관련 기업 유치와 스타트업 입주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유치를 통해 ‘전북 R&D특구 트라이앵글’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에너지 연구거점(새만금), 농생명 융합 연구거점(전주·완주), 융복합 혁신 연구거점(정읍)을 잇는 첨단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만금을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서 새만금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산재예방 위한 ‘2025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개최

우수 안전보건인 표창 및 안전문화 실천 공모전 · 시상중대재해 감축 결의문 낭독... 산업재해 없는 전북 만들기 총력 다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안전보건네트워크는 30일 익산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2025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산업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오백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권현민 전북 안전보건네트워크 총회장, 공영철 전주교통노동자청정운을 비롯해 건설·제조·서비스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우수 안전보건인 표창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문 낭독 △안전보건활동 특강 △안전문화 실천 공모전 발표 등으로 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안전보건네트워크는 30일 익산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2025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했다. 전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재해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수 안전보건인 시상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6명, 고용노동

부 전주·익산·군산지청장상 9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서부지사장상 6명 등 총 21명이 표창을 받았다.

또한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

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내 모든 사업장이 안전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UCC 및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대상 2팀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우수상 4팀이 고용노동부 지청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공모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도내 사업장들이 추진 중인 우수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며 산업재해 예방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했다.

오백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재해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국립군산대, ‘ASK2050 새만금 포럼’ 공동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과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엄기욱)는 30일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제5회 ‘ASK2050 새만금 포럼’을 성황리에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미래산업과 새만금의 비전·미래를 향한 글로벌 지역혁

신’을 주제로, 새만금 산업단지와 지역대학이 협력해 미래 산업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 LS L&F 정성훈 경영 부문장과 성일하이텍 김성식 상무가 패널로 참여했다.

LS L&F는 고성능 배터리 소재 전문 기업으로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중인 새만금의 핵심 파트너 기업이며, 성일하이텍은 페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등 핵심자원을 회수하는 순환경제의 선도기업이다.

이날 포럼에서 패널들은 이차전지, 자

→ 1면에 이어... 발효의 맛, 세계가 주목...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내달 3일까지

특히 ‘전통주특별전’에서는 전북의 대표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참여해 올해의 건배주를 비롯한 지역 전통주 시음·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엑스포는 도내 농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도 주력한다. 전북도는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B2B 수출상담회를 열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운영해 온라인 판촉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우체국소포물, 유튜브 생중계, 현장 인터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참여기업의 매출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지역 농식품을 활용한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 뮤지컬, 타악 퍼레이드, VR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돼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미니특공대’·‘캐치티니핑’ 등 어린이 인기 캐릭터 공연이 무대에 오르고, 전통놀이 체험, 페이스페인팅, 쿠키클래스 등 30여 종의 참여형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도는 올해 이상기온과 조리환경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장별 냉난방 시설을 구축하고, 이동식 화장실과 휴게 공간을 확충해 관람 편의를 높였다. 또한 전시 부스와 행사 시설 전반에 재활용 자재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푸드트럭에는 다회용기와 생분해 용기를 사용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대한민국 대표 식품전시회로서 우리의 발효식품의 맛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발효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전북의 식품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의겸 새만금청장, ‘APEC

CEO Summit’ 수소 세션 참석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30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는 ‘APEC 최고경영자 회의(CEO Summit)’의 수소 세션에 참석했다.

APEC 최고경영자 회의는 APEC 정상 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 경영자들의 연례 포럼으로, 이번 수소 세션은 ‘수소, 모빌리티를 넘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Hydrogen, Beyond Mobility, New Energy for Society)’를 주제로 수소경제의 방향과 수소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도, 미래 신산업 투자유치 행보

‘Invest Korea Summit 2025’ 참가...글로벌기업 대상 전북·새만금 홍보

Solo Automotive 등 글로벌 기업과 후속 협력 논의로 투자유치 가속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투자자를 상대로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Invest Korea Summit 2025’(IKS)에 참가해 전북과 새만금의 투자환경, 미래산업 비전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소개했다.

IKS는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로, 주요 글로벌 기업, 해외 언론, 외교사절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컨퍼런스, 세미나, 투자환경 I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북도는 행사 기간 동안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고,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전북의 산업 강점을 집중 홍

보했다.

투자설명회에서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북의 6대 핵심산업 전략 △새만금 산업단지 현황 △친기업 정책 등을 소개하며 참가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RE100, 피지컬AI 등 첨단·친환경 산업 기반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강조하며, 전북이 ‘기후친화적 미래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부각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 9월 북미 투자설명회에서 만났던 Solo Automotive(모빌리티), Indentec(에너지)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초청돼 전북도와 후속 미팅을 진행,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고령친화산업 거점도시 조성 본격

도,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AI 돌봄 · 웨어러블 · 스마트홈케어 등 Age-Tech 기반 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고령친화산업 거점도시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을 수행 중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관대규 교수)이 추진 현황과 중간성과를 공유하고, 고령친화산업의 핵심 전략 분야 및 복합단지 조성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고령인구 증가로 확대되는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시장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대규모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복합단지는 총사업비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약 40만 평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고령친화산업기술원 등 주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복합용지, 고령친화기업이 입주할 산업용지, 주차장 및 생태공원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전북도는 Age-Tech(에이지테크) 기반의 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스마트홈케어 등 첨단 기술 분야 기업을 우선 유치하여,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연구개발(R&D), 기업지원, 인증·실증, 인재양성까지 아우르는 ‘고령친화산업 혁신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고령친화산업기술원 △고령친화산업인증원 △고령친화기업지원단 △고령친화산업인재개발원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등 5대 핵심 기관 설립을 추진해, 연구·산업·복지·교육이 연계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용역 결과는 △단계별 세부 과제 및 실행 로드맵을 담은 단기 기본계획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국책사업 예산 확보 △국내외 기업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정책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정부예산 3억 반영)에 전북대 산학협력단 등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 위촉

감사청구 대상 여부 · 감사청구요건 적합성 여부 등 심사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민간 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2년이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내부위원 4명과 도의원 1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청구가 접수될 경우 △감사청구요건의 적합 여부 △감사청구 대상 여부 △감사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 유효 여부 등을 심사해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회에서 감사 개시가 결정되면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수행한다.

도내 시·군 행정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는 도 감사위원회가, 도 자체 행정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이만호 기자

도,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14개 시군의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워크숍’을 열고, 시군별 지표 분석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2025년 산출지표를 공유하고, 주요 변동 사항이 지역별 안전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다. 특히 사망사고 등 위해지표를 낮추고, 주민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반영한 의식지표를 높이는 전략을 중심으로 시군별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망사고 등 ‘위해지표’, 위험요인을 가중시키는 ‘취약지표’는 낮추고, 위해를 줄이는 ‘경감지표’, 생활습관 및 주민 참여를 반영한 ‘의식지표’를 높이는 세부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통계 관리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지수 전반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